국립농업박물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6. 10. 19.(월)				
담당 부서	전시기획팀	책임자	팀장	추가영	(031-324-0761)
	전시기획팀	담당자	주임	성주현	(031-324-0766)

국립농업박물관, 테마전 <따스하게 달그락> 개최

-부엌을 지켜온 가구 '찬탁' 을 다시 보다-

◇ **전 시 명: 따스하게 달그락**
◇ **전시기간:** 2026. 10. 20.(화)~2026. 12. 13.(일)
◇ **참여작가:** 서수현
◇ **전시장소:** 국립농업박물관 전시동 중앙홀(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 **관람안내:** 무료 관람

□ 국립농업박물관(관장 오경태)은 소장유물 '찬탁'을 중심으로 우리 부엌과 한식문화를 새롭게 보는 테마전 <따스하게 달그락>을 10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개최한다.

□ 옛 부엌에서 음식과 식기를 보관할 때 사용한 생활 가구인 '찬탁'의 역할과 구조를 비롯한 가치를 살펴본다.

○ 오늘날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찬탁'과 '부엌의 사물'을 새로운 시선으로 가구를 제작해 온 아트 퍼니처 작가 서수현의 작품으로 만나본다.

□ 전시는 △프롤로그 '찬탁: 달그락, 문화를 짓다', △1부 '찬탁: 우직하게, 부엌을 지키다', △2부 '찬탁: 새로이, 부엌을 품다', △에필로그 '찬탁: 따스하게, 쓰임을 잇다'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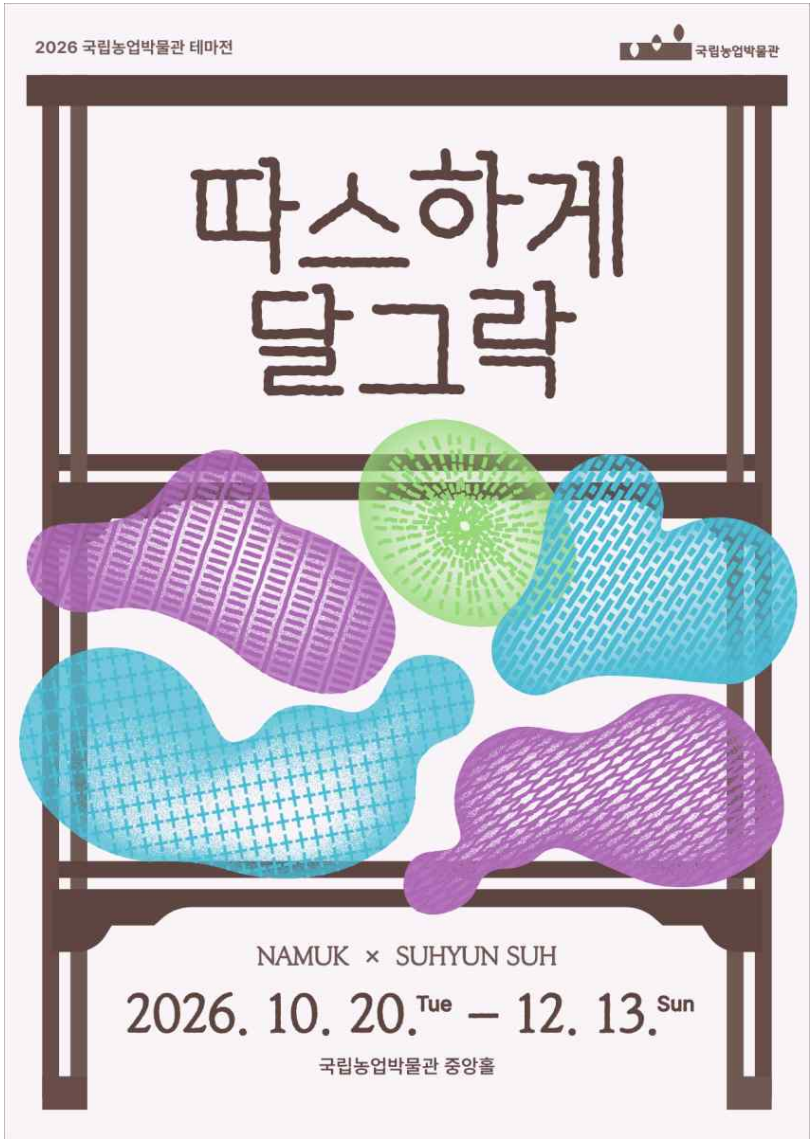
○ 프롤로그에서는 우리 부엌에 꼭 필요한 가구였던 '찬탁'을 중심 유물로 선정한 이유를 소개한다.

○ 1부에서는 음식과 반찬 및 식기를 보관하고 정리하던 견고한 가구 '찬탁'의 구조와 역할을 소개하며, 국립농업박물관이 소장한 '찬탁'을 자세히 관람할 수 있는 정보 영상을 선보인다.

○ 2부에서는 '찬탁'과 부엌에서 쓰인 사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서수현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찬탁을 비롯해 가마솥, 조각보 등을 철재와 섬유 등 다양한 재료와 감각으로 새롭게 창작했다.

□ 오경태 국립농업박물관장은 "찬탁은 우리의 부엌 안에서 오랜 시간 쓰임을 이어온 생활 가구"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찬탁'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테마전 포스터



테마전 포스터

붙임 2 주요 전시물



국립농업박물관 소장유물 <찬탁>



협업 작가(서수현) 작품 <찬탁 Ⅰ·Ⅱ>

붙임 3 참여작가 프로필

❑ 작가약력



❍ 성　　명: 서수현(SUHYUN SUH)

❍ 출생 년도: 1996년

❍ 학　　력

2020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 패션디자인과 졸업

목조형가구학과 졸업

❑ 작가노트

❍ 서수현 작가는 섬유를 기반으로 가구와 오브제를 제작하는 아트퍼니처 작가이다. 섬유패션디자인과 목조형가구학을 전공했으며, 드로잉, 터프팅, 패브릭 조형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일상의 사물과 가구를 새로운 형태로 표현한다. 일상에서 발견한 사물과 어린 시절의 기억, 익숙한 공간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작업하며, 가구의 기능과 조형적 특성을 함께 살펴보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패브릭과 다양한 소재를 결합해 가구와 오브제의 형태를 확장하고, 색채와 재료의 조합을 통해 일상적인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한다.

❑ 주요 전시 및 협업

❍ 개인전

- 2022. 02 개인전 <HOUSE IN THE HOUSE> , 유영공간
- 2022. 12 개인전 <틈> , cj 오덴세
- 2023. 08 개인전 <my very ordinary things> 롯데갤러리

❍ 단체전 및 협업

- 2021.03 <마중물 아트마켓>, 김리아 갤러리
- 2022.08 <만들거나, 덧붙이거나> 송파구립 예송미술관
- 2026.09 <NIKELAB SEOUL>, 유스퀘이크

협업작가 프로필